

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촛불문화제 개최

일시 : 2020년 12월 14일(월) 오후 17시 30분

장소 : 국회 앞

제안자 :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,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, 송경용신부 생명안전넷 대표, 이상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,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 (가나다 순)

○ 취지

-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. 12월 10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. 정의당, 더불어 민주당,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,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.
- 12월 11일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, 정의당, 민주노총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.
-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하여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은 14일 월요일 연내 입법을 위하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촛불문화제는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 9인 참여하여 예방규칙을 준수하며 개최될 예정이다.

○ 프로그램

- 각 단체 대표자 입장발표
- 향후 계획 발표
- 종교단체들 기도회 개최예정

○ 참가자

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
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
정강자 참여연대 대표
송경용 신부 생명안전넷 대표
이상윤 보건의료단체 대표
외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변경될수 있음.